기관 • 단체 소식

농림부
닭 뉴캣슬병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과태료 처분

농림부는 최근 전남 · 북 지방에서 닭 뉴캣슬병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방역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양계농가 피해를 줄여나가겠다고 지난 8월 28일 밝혔다.

뉴캣슬병은 해마다 닭고기 성수기에 대비, 사육량을 늘려 밀집사육을 하는 3~6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며, 6월말까지 53건이 발생하여 전년동기 33건보다 증가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뉴캣슬병 발생최소화를 위하여 부화장 등의 예방약 부족물량을 추가(244백만수분) 공급하고, 종계장(223개소) · 부화장(225개소) · 도축장(61개소)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점검 및 사료 · 닭 수송차량의 소독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닭뉴캣슬병방역실시요령(농림부고시)"을 제정하여 예방접종 미실시 농가 등 방역관리 위반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실시키로 했으며, 아울러 뉴캣슬병 예방은 농장주의 방역의식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계열화 업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계열화 주체로 하여금 농가를 홍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뉴캣슬병 근절대책('01~'05년)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뉴캣슬병 예방약을 100% 지원(8억수분)한 결과 2001년에는 2000년 대비 50%로 발생이 줄었으나, 금년 들어 전남 · 북 지역을 중심으로 2000년 수준으로 발생이 늘어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작년 11월에는 닭고기 수출추진을 위하여 경기도에서 "예방접종확인서" 첨부의무화 등 뉴캣슬병 방역관리 시범사업을 실시, 그 결과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축산국, 가축방역과 축산물안전성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실시

농림부는 최근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발생과 소비자들의 축산물위생 및 안전성관리 강화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축산국의 조직을 개편, 지난 8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가축위생과는 "가축방역과"로 변경하여 가축방역 · 검역업무 전담키로 하였고, 방역관련계를 종전 2개계에서 4개계로 확대하였으며, ▲축산물유통과는 "축산물위생과"로 명칭을 바꾸고 축산물의 위생 · 안전성 · 품질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고 도축장관리,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등 위생업무를 종전 가축위생과로부터 이관받고, 축산물가공, 소매유통, 부정축산물 단속, 가격조사업무 등 기존 유통관련업무와 함께 사료품질 및 안전성(관리업무)도 함께 관장키로 했다.

한편, 축산경영과는 한우 · 낙농 · 양돈 · 양계 등 각 축종의 경영개선 지도와 수급업무를 총괄하면서 축산분뇨처리 등 환경업무를 함께 관장토록 하여 환경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축산정책과는 축산자조금과 가축공제 등의 업무를 새로 담당하면서 축산정책 수립 · 조정에 관한 업무를 강화하고, 마사계를 신설하여 경마산업육성, 마사회 운영 · 감독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 닭고기 · 오리고기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

농림부는 금년 상반기 농산물 수출실적을 분석한 결과 닭고기와 오리고기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닭고기는 6월말까지 977톤(1,679천불)이 일본, 홍콩 등으로 수출되어 전년동기(692톤/1,236천불)대비 41% 증가했으며, 오리고기는 지난해 134톤으로 전년동기대비 189% 증가한 387톤이 수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닭고기, 오리고기의 수출 증가세가 빠르게 나타난 배경에는 국내 육계 가공산업의 계열화가 크게 진전되었고 업계와 민간 · 학계 공동으로 현지시장조사 및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닭고기는 수출용 육계 사육시설확충과 상주에 소재한 (주)하림천하의 수출용 도계 · 가공시설이 11월에 완공되면 내년부터 고품질 닭고기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리고기는 화인코리아 등 전문 계열화업체에서 기존 부산물 위주의 수출형태를 탈피하기 위해 최신 오리도계 · 가공시설을 신규로 설치 가동함에 따라

부분육, 통오리 등 대일 수출단가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현재 일본시장여건 및 소비성향을 감안할 때 닭고기와 오리고기 및 그 가공품의 수출 잠재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지속적인 수출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 현지 유명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한 유망 수출선확보 및 바이어초청행사, 식육전문지광고 등 한국산 닭고기, 오리고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수출용 규격닭 생산을 위한 경영자금지원 및 사양기법 보급 등 품질고급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문의 : (02)500-1906 농림부 축산경영과

◆ 축산업 등록제 전환,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 철폐 등 축산법 개정안 마련

농림부는 축산업의 규모화 및 밀집사육 증가에 따라 구제역 · 돼지콜레라 등 악성 가축질병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개방화 · 국제화시대하에서의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산법의 근간을 바꾸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구제역 등 가축질병예방과 축산업 등의 위생관리수준 강화를 위해 규제완화 차원에서 1999년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바꾸었던 부화업 · 종축업을 다시 등록제로 환원하고,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축산업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축산업의 등록의무 위반시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시장 · 군수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방화 · 국제화되어 가는 축산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할 계획이며, 도축장에서 처리되는 축산물로 한정되어 있는 축산물등급판정대상을 계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이번 축산법개정은 관계부처의견조회, 입법예고 및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금년도 정기국회에서 개정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참고로, 현행 대기업의 참여제한 축산업의 범위는 닭 5만수 이상의 양계업(종돈업 · 종계업 등은 제외)과 모돈 500두 이상의 양돈업으로 되어 있다.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전국 순회교육 실시

농림부는 시 · 도 및 관련단체의 축산물위생업무 담당자, 도축장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축산물의 위생 · 안전성 제고 및 HACCP 추진 등에 대한 교육 · 홍보를 통하여 축산물작업장에 대한 HACCP 조기정착과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제고 및 수출경쟁력 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교육일정

- 1차 : 2002. 8. 26 ~ 8. 27(2일)
- 2차 : 2002. 9. 2 ~ 9. 3(2일)

■ 교육대상 및 인원

○ 교육대상

- 시 · 도, 시 · 군 축산물위생 담당 공무원
- 농협 등 관련기관 · 단체(협회) 소속 축산물위생 담당자
- 도축업 · 집유업 및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식육가공업, 알가공업)영업자
- 기타 동 교육에 관심 있는 자

○ 교육인원 : 각 권역별 200명(4개권역 총800여명)

■ 교육방법 및 내용

전문강사진을 구성하여 4개 권역별로 순회교육(붙임1참조)

○ 교육내용(붙임2참조)

- 축산물작업장 HACCP 추진 정책 방향(농림부)
- HACCP 시스템의 전반적인 이해 및 적용(한국식품개발연구원)
- 제조물책임법(PL법) 홍보 및 대처방안(농협중앙회)

※ 홍보물 배부 : HACCP 홍보 전단지 교육당일 배포

■ 문의 : (02)500-1939 농림부 가축위생과

축산물등급판정소 등급판정수수료 관련 설명회 개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지난 8월 23일 서울 서초구 소재 (주)농협유통 하나로클럽 대강당에서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고경철 축산물등급판정소 부장은 축산물등급판정 사업재원인 축발기금이 축산물 수입이익금이 주 재원인데 2001년 1월 1일부터 소 및 쇠고기 수입이 완전자유화됨에 따라 수입쇠고기 판매이익금이 없어져 축발기금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점을 들어 수수료 징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축산법에 축산물의 등급판정에 대한 규정을 정하고, 축산물의 등급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에 의거,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다며 수수료 징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소도체와 돼지도체의 경우 등급판정이 의무제임을 감안, 수익자가 50%, 정부가 50% 수준을 부담하는 반면 계란과 닭고기의 경우는 신청자가 수수료 부담을 전제로 등급판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도체의 경우는 두당 2천원의 수수료를 출하자가 징수해야 되고, 돼지도체는 두당 4백원의 수수료를 내야 된다. 그리고 계란은 개당 2원, 닭고기는 마리당 20원의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등급판정소는 이같이 수수료 징수를 통한 오는 2010년에는 등급판정 비용을 수수료로 충당, 자립체계를 구축해 나가되, 등급판정자립체계가 구축된 이후에는 소, 돼지 등급판정제도를 의무제에서 자율제로 전환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등판소의 계획과는 달리 한국계육협회를 포함한 양계협회, 양돈협회 등 대부분의 생산자단체들은 내년 1월 1일 축산물등급판정 수수료 징수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수의사회
2002년도 제1차 축산물검사보조원 보수교육 개최

대한수의사회(회장 이우재)에서는 지난번 돼지콜레라 및 구제역 발생에 따라 연기되었던 2002년도 제1차 축산물검사보조원 보수교육을 개최한다. 도축(닭도축포함)에 관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일시 : 2002년 9월 6일(금) 14:00~18:00
■ 장소 :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대전시 유성구 소재)

■비고 : 기존에 수의과학회관(분당)에서 2회 개최하던 교육을 엑스포과학공원(대전 유성소재)에서 1회, 수의과학회관에서 1회 실시할 예정(현장검사를 담당하는 모든 검사보조원은 교육을 받아야 함)

■문의 : (031)702-8686 대한수의사회 사무처

양계수급안정위원회
육계가격 폭락에 따른 대책 협의

양계수급안정위원회(위원장 임병철)는 지난 8월 22일 양계수급안정위원회 위원과 농림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용산별관 사무소에서 제3차 양계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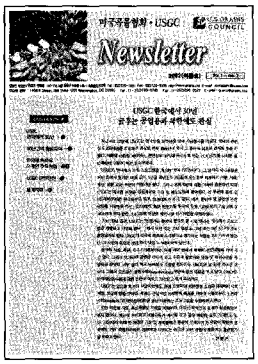
이번 수급안정위원회에서는 육계가격 폭락의 원인분석과 대책검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우선 수급안정위원들은 원종계 및 종계입식실적을 감안할 때 최근의 불황이 앞으로 2~3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불황을 해소하기에 앞서 원종계 및 종계 감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계육협회와 양계협회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사육월령별 차등 보조금 지급을 통한 종계의 조기도태를 유도해 나가기로 하고 그 세부방안을 수급안정위원회 실무국에서 마련, 추진키로 했다.

계육협회는 단기대책으로 육계수매비축과 종란폐기 및 병아리 랜더링처리, 중기대책으로 과잉 종계도태와 월령별 보조금 차등지급, 환우금지, 종계수출지원, 장기적으로는 원종계 감축과 쿼터제 실시, 그리고 닭고기 수출여건조성 지원을 대책으로 주장했다.

미국곡물협회
2002 여름호 Newsletter 발간



미국곡물협회(회장 박영인)는 최근 2002 여름호 Newsletter를 발간했다.

이번호에는 USGC 한국에서 30년간의 활동사항 요약 및 한국에 최초로 소개한 주요사업, USGC 관련단신, 통계자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Newslette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국곡물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02)720-1891

농협중앙회
수해복구에 총력 투입

농협중앙회는 금번 집중호우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신속한 수해복구와 농업인 지원에 총력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 임직원들이 총 2억7천만원의 성금을 모아 지원키로 했으며 이 성금은 수해지역에 생필품과 복구장비 지원 등에 쓰여진다.

농협보유 복구장비와 인력도 복구작업에 투입된다. 원활하고 적극적인 복구작업 참여를 위해 회원농협 보유 복구장비에 대해서는 유류비와 운송비 등을 중앙본부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협은 소요예산 5천 8백만원을 긴급 배정했다.

또 수해지역의 농업인과 중소기업에 긴급 대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총 2천억원의 수해복구자금을 특별배정하고 9월말까지 우선 대출해 주기로 했다.

수해 농업인들을 위한 가계자금은 대출기간 최장 5년, 가구당 3천만원까지 기존 대출에 상관없이 대출해주며 농업, 중소기업자금은 최장 10년까지 피해액 이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우대금리로 대출해 준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월 11일부터는 임직원들이 수해 현지를 방문,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생수, 취사도구, 이불, 식료품 등 1억 2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밖에 지난 8월 12일부터 17일까지는 수해가 비교적 적은 전남 · 북 지역 농협이 경남지역 수재민에게 차량 6대 분량(3천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여 영호남간 따뜻한 농심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문의 : (02)397-5609 농협중앙회 재해대책상황실

◆ 올들어 두 번째 사료값 3% 인하

농협은 지난 8월 22일 0시를 기해 농협사료 전 품목 판매가격을 평균 3% 내렸다.

이번에 단행된 인하 내역을 품목별로 보면 ▲비육사료 29개 품목에 대해 톤당 최대 21,200원에서 최소 12,000원 ▲낙농사료 16개 품목에 대해 톤당 최대 20,000원에서 최소 12,800원 ▲양돈사료 31개 품목에 대해 톤당 최대 104,000원에서 최소 14,400원 ▲양계사료 28개 품목에 대해 톤당 최대 17,200원에서 최소 12,800원 ▲기타사료 8개 품목에 대해 톤당 최대 19,200원에서 최소 14,800원까지 각각 내린다.

농협은 지난 5월에 농협사료 공급가격을 3% 인하한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3%

내림으로써 올들어서만 총 6%를 인하했으며 이로 인해 전국의 양축농가들은 약 320억원의 생산비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의 이번 사료값 인하 조치는 최근 환율 급등락과 환율전망이 매우 불투명하고 미주지역 이상기후 현상으로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어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세를 보이는 등 사료가격을 인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해지역의 양축농가와 사료값 부담을 느껴온 전국의 농업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 (02)2224-8549 농협중앙회 사료분사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닭고기수출위원회) 닭고기 수출촉진 현장 협의회 개최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닭고기수출위원회)는 국내 닭고기 대일 수출 촉진방안 수립을 위해 지난 8월 21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소재 (주)하림 본사에서, 27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마니커 본사에서 이틀간에 걸쳐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 축산기술연구소 관계관과 본회를 비롯 관련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닭고기 수출촉진 현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닭고기 대일 수출 사전준비 사항에 대해 닭고기 수출시장인 일본 현지생산자들이 ND를 비롯한 국내 질병발생 추세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에 따라 ND 근절을 위한 국가방역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또한 전 지역에 대한 방역이 힘들다면 우선적으로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반경 50㎞내 지역부터 국가차원의 방역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종계장이나 농장들에 대한 충분한 백신공급과 백신접종 여부확인 및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물론 구제역발생 당시와 마찬가지로 도로에 대한 차단방역을 통한 오염원 가능성이 있는 출입차량이나 물품에 대한 소독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하림은 닭고기 대일수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으로 ▲환경조절계사의 개보수 및 신축자금지원 ▲암수분리사육에 따른 병아리감별비용 보조 ▲체계적 방역시스템 운영에 따른 일부 비용 보조 ▲발골기술자 훈련과 적응에 따른 일부비용 보조 ▲물류비와 포장비 보조 ▲계육수출 장려금 보조 ▲농수산물 수출보험금 보조 ▲다리정육 발골기계비(약 36억원 예상) 보조 등을 요청했으며, 마니커는 ▲수출가격 공조 ▲외국인 연수생 활용 ▲수송차량 소독강화 지원 ▲도계라인 개선 등을 요청했다.